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전략과 실제

유 기 준*

(e-mail : kjyou@kongju.ac.kr)

目 次

1. 머리말
 2.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성격과 범위
 - 2-1. 그린투어리즘의 성격
 - 2-2. 그린투어리즘의 범위
 3.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전략
 - 3-1.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법제적 정비
 - 3-2.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추진 방향
 4. 일본 그린투어리즘 실제
 - 4-1.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사례 분석
 - 4-2. 시사점
 5. 맺음말
-

1. 머리말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에서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산촌·어촌(이하, 농산어촌)에 체재하면서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게 된 자연과 문화의 매력에 접하고, 농림어업의 체험과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여행이라 정의하고 있다¹⁾. 즉 “농산어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의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은 1994년도의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어촌여가법)이 제정되면서 농산어촌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는 일본그린투어리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관광학부 교수 관광경영학전공

1) <http://www.kouryu.or.jp>

즘의 등장배경과 특징을 분석한 이응진의 연구,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분석한 김상윤의 연구, 관동지방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형 그린투어리즘의 현황을 분석한 유상오의 연구,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현황과 농촌환경정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김범수의 연구 등²⁾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 주제별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전략을 파악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 최근 변화되는 일본 국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인식과 최근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였다. 또한 이렇게 변화되는 일본사회 속에서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될 수 있었던 그린투어리즘 관련된 제반 법규제의 완화와 새로운 법제적 조치의 과정과 최근 일본 정부의 새롭게 변화되는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방향과 성공한 그린투어리즘의 다양한 실제사례 분석도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최근 일본농림수산성의 자료³⁾와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보고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변화되는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성격과 법제적 측면에서의 지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새롭게 변화되는 그린투어리즘의 전략을 살펴보고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실제의 모습을 성공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려한다. 이러한 분석은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농산어촌의 그린투어리즘 현장 관계자와 그린투어리즘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의 그린투어리즘 담당자에게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성격과 범위

2-1. 그린투어리즘의 성격

- 2) 김범수 외(2000), 「한국과 일본의 농산촌 지역에 있어서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관한 비교」, 『산림휴양연구』 제4권 제1,2호
김상윤(2001),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2호
박광순(1998),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30권 제1호
송광인(2003),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18권 제1호,
유상호 외(1998), 「일본형 그린투어리즘 현황에 대한 연구」, 『관광농업연구』 제5권 제1호
이응진(2000),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변천과 특징」, 『관광연구』 제15권 제1호
(2003), 「일본 리조트법 개정이후의 관광개발에 관한연구」, 『경제경영연구』 제1집 제3호
- 3)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2006.4.),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現状について」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企画部農村政策課(2007.3.),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展開方向」
- 4) (財)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 「平成 18年度 事業計画」, 「平成18年度 事業報告」, 「平成 19年度 事業計画」, 「平成 19年度 事業報告」, 「平成 20年度 事業計画」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부흥기와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과소문제와 도시와 농촌과의 소득격차의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교류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리조트개발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1987년 종합보양지역정비법(리조트법)은 전국적인 규모로 리조트개발 붐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1900년대에 들어 자연파괴, 환경문제, 과잉투자, 수익성확보 등의 대형 리조트형 관광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며 대규모 관광개발을 동반하지 않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개발형태를 연구하면서 그린투어리즘을 주목하게 되었다. 즉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리조트 개발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대두되었으며 농산어촌 지역자원, 농산어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산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지역주민의 교류촉진을 진흥하는 사업으로 전개되었다.⁵⁾ 이때의 그린투어리즘은 인구의 과소화, 제1차 산업의 쇠퇴라는 농산어촌지역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정책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여러 자연과 전통문화를 활용할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민들의 자구노력과 일본인의 여행패턴의 변화 등에 힘입어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등장한 그린투어리즘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농촌주민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며 도시주민과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하여 농촌의 생활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관광형태라 이해된다.⁶⁾ 이러한 그린투어리즘의 성격은 교류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하에 농산어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민들의 농산어촌을 방문하는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성격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라는 것은 도시와 농산어촌을 왕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도시와 농산어촌에 각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지역에 대한 매력을 함께 나누고 「사람, 물건, 정보」의 왕래를 활발히 하는 활동이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는 그린투어리즘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거주나 반거주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도시와 농산어촌을 쌍방향에서 왕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⁷⁾ 최근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단과세대⁸⁾가 퇴직을 하는 2007년을 맞이하며 도시와 농

5) 이용진(2000),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변천과 특징」, 『관광연구』 제15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pp.289-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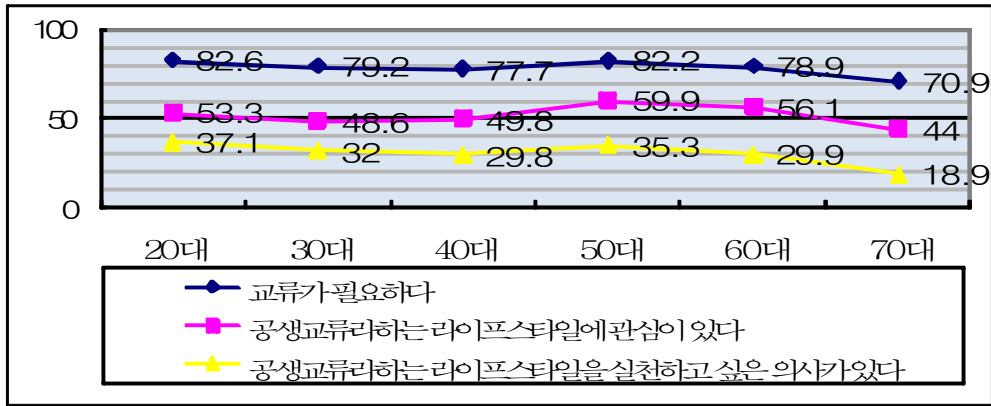
6) 문옥표(2000), 「그린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 『농촌사회』 제10집, p.213

7) <http://www.kouryu.or.jp>

8) 1947년부터 1949년 무렵의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

산어촌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80% 정도이고 시니어 세대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 국민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도시민을 중심으로 여유와 평안의 추구 그리고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지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1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에 관한 의식(세대별)



이러한 전략은 최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의 성격이 단순히 농촌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는 도시대로,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대로 각각에 사는 모두가 서로의 지역의 매력을 알고 <사람, 물건, 정보> 의 왕래를 활발히 함으로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9) 일본에서 순(旬)은 생선, 과일 등이 한창 때로 식재료의 맛이 가장 좋은 시기로 제철이다.

10) <http://www.kouryu.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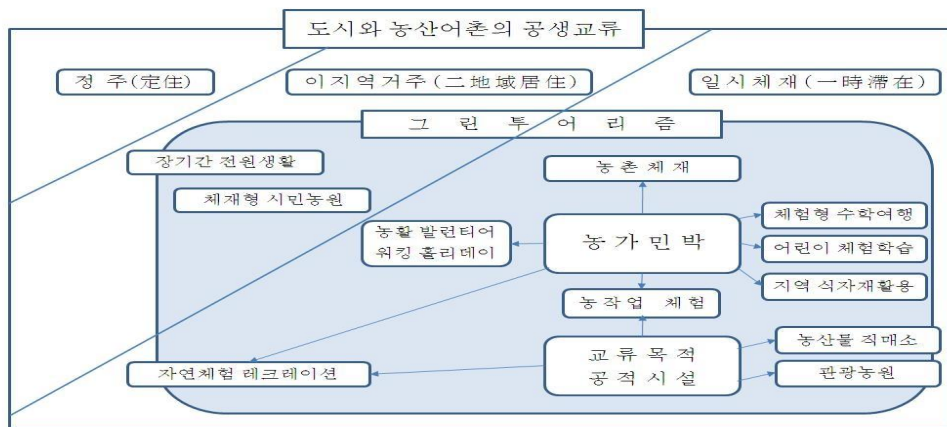
11) <http://www.ohrai.jp>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2-2. 그린투어리즘의 범위

일본에서 그린투어리즘이란 농산어촌에 체재하면서 자연과 문화의 매력에 접하고 농림어업의 체험과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여행을 의미한다. 그린투어리즘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림-1>과 같이 농산물직매소 이용, 농가민박에서의 워킹홀리데이나 농작업체험 등을 위한 일시체재(一時滞在)와 도시와 농촌의 이지역거주(二地域居住), 체재형시민농원에서 장기간 전원생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폭 넓게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와 그린투어리즘



출처 : <http://www.kouryu.or.jp>

이러한 그린투어리즘은 ① 농림어업체험 민박의 숙박을 통한 농림어업이나 사람들과의 교류 ② 통나무집을 부설한 체재형 시민농원인 크라인가르텐(クラインガルテン)¹²⁾에서의 체재 ③ 벼 베기, 소바 만들기 등의 「농작업체험」과 「지역식자재를 활용한 식문화체험」 또는 자연 안에서 삼림욕과 트레킹 활동, 천혜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 바다에서 정치망을 활용한 고기 잡기 등의 물과 가까이하려는(親水)체험 활동 ④ 어린이들이 농산어촌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대상 체험활동 ⑤ 고향의 축제 등 지역전통문화 행사의 참여 등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린투어리즘을 포함한 농림어업·농산어촌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 높아지며

12) クラインガルテン(Kleingarten)이란 「작은 마당」이라는 뜻이고 본래 시민 농원을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시민농원에 통나무집을 부설한 체재형 도시민농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クラインガルテン(Kleingarten)은 통나무집의 유럽적 경관과 그 활용에 의한 유럽형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 되고 있다.

농림어업과 농어촌체험을 테마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잡지와 신문 등의 연재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3.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전략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산어촌여가법의 제정으로 그 제도적 기반은 세워졌지만 그 후 그린투어리즘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제반 법규제의 완화조치와 새로운 법제적 조치 등 여러 지원 시책을 통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대부분 농림수산성, 문부성, 국토청, 후생성 등을 통하여 정책이 개발되고 이들 정부기관의 보조사업 등의 지원과 위탁을 받아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가 주체가 되어 농산어촌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는 2001년 4월 1일에 탄생된 기구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위하여 기존에 설립되었던 (재)농림어업체험협회와 (재)고향정보센터와 (재)21세기 마을만들기학원이 하나가 되어 탄생된 기구이다.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는 도시주민의 자연과 고향을 찾고자하는 마음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의 바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와 농산어촌이 일체가 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규모의 운동을 전개하고,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룬 풍부하고 정감 있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의 탄생은 그린투어리즘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한 전략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농산어촌여가법의 제정이후 제반 법규제의 완화조치와 새로운 법적 조치 등의 법제적 정비 내용을 살펴보고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의 자료 등¹³⁾을 중심으로 일본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추진방향을 분석하려한다.

3-1.그린 투어리즘에 관한 법제적 정비

3-1-1 농산어촌여가법의 제정

1994년도에 농산어촌여가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에서는 농산어촌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13) (財)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의 「平成 18年度 事業計画」, 「平成18年度 事業報告」, 「平成 19年度 事業計画」, 「平成 19年度 事業報告」, 「平成 20年度 事業計画」과 농림수산성, 총무성 등의 그린투어리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린투어리즘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산어촌여가법은 ① 여유가 있는 국민 생활환경의 확보와 농산어촌 지역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에 체재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의 정비를 촉진하고 ② 농촌 체재형 여가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능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와 농림 어업 체험 민박의 등록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이 법은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기본방침과 시정촌(市町村)의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어업체험민박의 등록제도 등을 규정할 때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에는 일반적으로 농림어업체험민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어업체험민박은 일본의 일반여관과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어 농산어촌여가법이 제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농산어촌에서 민박의 개업이나 경영에 관해서 전국적인 수준으로의 규제완화 조치를 강구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① 여관법상의 면적 요건의 철폐(2003.4 전국 전개) ② 농가 민박이 실시하는 방문객 이동을 위한 차량운행을 도로 운송법의 허가 대상 제외(2002 명확화) ③ 농가 민박이 실시하는 농업 서비스를 여행업법의 대상 제외(2002 명확화) ④ 소방용 설비와 관련되는 규정의 유연한 운영(2004.12 전국 전개) ⑤ 농가 민박에 관한 건축 기준법상의 취급의 명확화(2005 명확화) ⑥ 농업 생산 법인의 사업 범위에 민박 경영을 추가(2003.9 전국 전개) ⑦ 농림어업 체험 민박 업자의 등록 대상 범위의 확대 (2005) ⑧ 탁주 제조의 면허요건의 특례(2003.11특구)로 농가 민박 등을 영위하는 농업자가 스스로 생산한 쌀을 원료로서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 최저 제조량수(6kl)를 적용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규제의 완화 이외에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차원에서도 여러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농가 민박에 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되기도 하고 농가 민박에 관한 식품위생법상의 취급에 관한 조례개정 등이 이루어 졌다.

3-1-2. 특정농지대부법의 시행

도시민이 휴과 자연에 접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의 시민농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시민농원의 개설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 부터 비교적 멀어진 농촌 지역은 시민농원과 간이 숙박시설이 세트가 된 체재형 시민농원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농원의 개설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위한 법적 조치로 특정농지대부법이다.

특정농지대부법은 2005년 9월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사람(농업자, NPO법인 등)」에 대해서도 시정촌(市町村) 등과의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시민농원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종전의 구조개

혁특구에 있어서의 특례 조치의 내용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구조개혁특구를 설정하는 일 없이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정책으로 그린투어리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조치 이외에 그린투어리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농산어촌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3-2.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추진 방향

일본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추진 방향은 계속적인 사업과 최근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2-1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1) 농림어업체험민박의 등록 권장과 홍보

그린투어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민박의 등록을 권장하고 민박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숙박정보의 제공과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체험민박의 이용 촉진을 유도한다.

2)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 제휴 지원 사업의 지속적 실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계를 초월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방철도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편안하게 오감으로 즐기는 그린투어리즘 여행을 기획하고 워크숍,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지역 내에서 새로운 교류 비즈니스의 창출한다.

3) 정보발신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실시

여유 있는 생활과 자연생활을 추구하는 도시주민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잠재적 요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려면 농산어촌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상담활동 등이 필요하다. 이에 인터넷이나 TV 등 각종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도시부의 자치체의 홍보지, 여행지 등에 홍보, 광고 등을 활용하여 도시주민이 농산어촌정보에 접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도시주민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는 그린투어리즘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 도시주민이 일상적으로 농산어촌 정보에 접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으로 주요한 이동수단이 되는 자가용차에 주목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한 그린투어리즘 시설(민박, 직매소, 농가 레스토랑 등)의 위치정보의 제공한다.

4) 그린투어리즘의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고 또 도시민들을 농산어촌지역에 장기간 맞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체제의 정비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작성과 도시민을 받아들이는 농가민박 등의 개설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투어리즘의 담당자를 위한 각종 연수회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일본의 농림수산업에서는 2000년 4월부터 그린투어리즘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농촌교류학교」를 개설하였다. 이 시설에서는 체험민박을 운영하는 경영기법을 지도하는 한편 그린투어리즘 체험프로그램의 해설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주관하였다.¹⁴⁾

이러한 교육은 최근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에서 연수회의 성격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연수회는 그린투어리즘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과 농가민박을 운영하는 경영측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인재의 양성연수회로 ① 코디네이터(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포인트를 순회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입안자) 연수회 ② 매니저(지역 내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의 조정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요원) 연수회 ③ 인스트럭터(농업이나 음식 등을 활용한 지역의 즐길 거리를 체험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요원) 연수회 ④ 지역 안내자(지역자원을 적절한 해설을 통하여 소개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요원) 육성 연수회 등으로 분야별로 실시한다. 또한 농가민박 운영의 경영측면의 연수회는 ① 비즈니스 입문 연수회(그린투어리즘의 기본 및 활용 방법 연수) ② 농가민박 개업 연수회(농가민박개업의 수순과 제도를 중심으로 노하우 연수) ③ 농가민박 수준향상 연수회(그린투어리즘 서비스의 제공과 질 향상)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은 그린투어리즘 사업의 필수 요소인 농림어업체험민박의 등록 권장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광역적인 홍보와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기능 및 경험수준에 따라 그린투어리즘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한 농림어촌민박¹⁵⁾ 운영에 관한 단계별 전문화된 다양한 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린투어리즘 전문가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농가민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연수회 등의 마련은 우리 한국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3-2-2 새로운 정책의 수립

1) 대도시권에서의 그린투어리즘 페어의 개최

대도시권에 대한 홍보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층이 있는 대도시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즉 그린투어리즘이나 시골생활에 관심이 있는 도시에

14) 김상윤, 「전개논문」, p.57

15) 농림어촌민박이란, 농림어업경영체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등이 경영관리 하는 숙박시설이다.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의 매력을 직접적으로 폭넓게 알리고 실제 교류활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대도시권에서 그린투어리즘 페어를 개최한다.

개최에 즈음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사 기간 중에는 인스트럭터-그린투어리즘의 체험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인재-의 지도에 의한 체험교실의 개최와 지역특산품의 판매 등을 통하여 도시민과 농산어촌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만들어 서로의 교류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2) <농림어촌민박 어머니 100선> 정책 실시

농림어촌민박의 품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전국의 각 지역에 농림어촌민박경영의 모범이 되는 여성 실천자 100명을 <농림어촌민박 어머니 100선>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농림어촌민박 어머니 100선>의 선정기준은 여관업법의 영업허가를 받은 농림어촌민박을 경영하는 여성, 농림어촌민박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경영하는 여성, 농림어촌민박 시설의 운영이나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여성, 도시주민 등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여성, 농림어촌민박어머니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여성으로 평성19년도(2007년)에 20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평성20년도(2008년)에 40명 정도, 평성21년도(2009년)에는 40명 정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농림어촌민박의 실무를 책임지는 모범적인 <여성 실천자>들이다. 선정된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국내 각 지구에서 그 선정자와 농림어촌민박의 경영자나 여성실천자 등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의견교환회 등을 개최하여 전국의 농림어촌민박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품질이 좋은 농림어촌민박을 확대 하는데 있어서 인재육성이 필요하고 또한 농가민박을 성공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농림어촌민박 경영을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지역의 활성화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선정하여 이 사람들의 경영내용이나 활동 실적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합을 통해서 농림어촌민박 경영자 및 신규 개업 희망자들은 농가민박의 품질의 유지와 향상에 참고가 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국제그린투어리즘의 권유사업 실시

외국인여행자를 대상으로 그린투어리즘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그린투어리즘 모델지구를 선정 소개하고 또한 농산어촌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외국인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과제해결을 위하여 외국인과 상담이 가능한 인재(국제그린투어리즘 응원단)의 등록을 받고 있다.

4) 도농교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실시

4-1) 교류거점의 정비와 광역제휴를 위한 지원시책

폐교 등의 기존 시설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매력이 있는 교류 거점 등의 정비와 도시와 농산어촌의 주체가 제휴하여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의 지원시책으로서 2007년 신규로 「농산어촌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과 「광역제휴 공생·교류 등 대책교부금」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농산어촌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거주자 및 체재자의 증가라고 하는 관점도 감안하면서 농산어촌의 관계없이 시설의 정비 등 각종 사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까지 농산어촌의 정주자를 150만 명, 지역거주자를 300만 명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농산어촌지역의 진흥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광역제휴 공생·교류 등 대책교부금」은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여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에 이바지하는 광역제휴프로젝트나 도시농업 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을 창설하는 것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의 사이로 「사람, 물건, 정보」의 왕래를 활발하게 하는 정책이다. 정책목표는 도시 농촌 교류 시설의 연간 숙박자수를 2004년의 770만 명에서 2009년에는 88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4-2) 어린이 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 사업¹⁶⁾ 실시

어린이 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총무성의 3성이 제휴한 약 470억 엔 규모의 방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욕이나 자립심, 배려심, 규범의식 등을 기르고 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교육활동의 성격으로 농산어촌에서의 장기 숙박 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작년도인 평성20년도(2008년)의 활동으로 ① 농산어촌에서 1주일 정도의 숙박체험 활동을 모델로 실시하고 이들 활동을 통해서 문제 과제에 대한 대책수립과 노하우의 축적 등 ② 세미나 등에 의한 정보제공을 하고 체험활동의 실시 ③ 관계기관에서의 정보 공유화 등을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활동에 연결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의 그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주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농산어촌에서의 장기 숙박 체험활동 실시이다. 이 시책은 문부과학성이 추진기관으로 어린이들이 배우려는 의욕이나 자립심, 배려심, 규범의식의 풍부한 인간성이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농림수산성이 진행하는 수용 모델 지역과 연합하여 초등학생의 농산어촌에서의 장기 숙박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 1학년 단위(100인 규모)로 어린이를 수용 가능한 모델 지역(전국 40지역)을 만들고

16) 總務省 報道資料(平成 19年 8月31日), 總務省,文部科學省,農林水産省による連携事業, 「子ども農山漁村交流プロジェクトの推進について -120万人・自然の中での体験活動の推進-」
[http:// www. soumu.go.jp/](http://www.soumu.go.jp/)

지역에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수용 계획의 작성과 수용거점 시설(폐교개수, 연수시설 등의 정비)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수용지역의 전국 확대(약 500지역으로 확대)를 도모하고 초등학생 120만 명이 농산어촌에서 장기 숙박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농산어촌 장기 숙박 체험 활동의 추진 체제의 정비 등이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총무성은 전국 추진협의회의 설립 및 활동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이나 수용 매뉴얼 등을 검토하고 체험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모델실시로 축적된 노하우와 수용지역 정보 등을 수집 정비하고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하고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한다. 셋째, 초등학생 120만 명이 농산어촌에서 장기 숙박 체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노하우의 축적과 공유와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지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 세미나의 개최 등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나 지역 리더의 양성을 도모한다. 넷째, 총무성은 도도부현(都道府県)이 행하는 현내의 활동 계획의 작성, 연수회의 개최, 도도부현(都道府県) 추진 협의회의 운영이나, 시정촌(市町村)이 행하는 농림어가민박의 개업 촉진 등 수용지역 만들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다섯째, 환경성 등 다른 정부부처 등과 제휴하여 농산어촌에서 자연체험활동의 소용 지구 정보의 수집, 자연 체험 활동을 지도하는 인스트럭터의 양성이나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생의 농산어촌에서의 장기 숙박 체험 활동의 지원 등의 협력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에서는 어린이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 수용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고 수용검토지역을 대상으로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과제를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자를 파견하는 등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¹⁷⁾ 즉 어린이들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위해 농가민박을 개업하려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업까지의 절차와 제도와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노하우를 배우는 농가민박 개업연수회와 농가민박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위한 안전관리 체험프로그램의 작성과 교육적 효과의 증진을 위한 기술 등을 배우는 농가민박 수준 향상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그린투어리즘의 추진방향은 그린투어리즘의 사회적 공헌을 단순한 경제적 효과 이외에 자연적 환경이 보전되고 있고 농수산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역 특유의 독특한 전통문화의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모습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농산어촌을 가장 일본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

일본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의 정책방향의 시사점으로 도농교류의 명확한 정보전달을

17) <http://www.ohrai.jp/kodomo/>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의 구축과 농산어촌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에는 그린투어리즘의 발전을 위하여 대도시권에서의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농산어촌소개, 농어촌민박의 모범 경영자를 선발하여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특히 그린투어리즘의 농산어촌에서 장기 숙박 체험을 초등학교생들이 배우려는 의욕이나 자립심, 배려심, 규범의식의 풍부한 인간성이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실제

일본에서의 그린투어리즘은 농가민박을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운영전략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림어업체험민박, 학교 등의 기존 시설의 활용, 타나다오나(棚田オーナー, 이후 계단식논 오나)제도¹⁸⁾, 민간교류시설 이용, 민간단체의 조직 활용, 워킹홀리데이제도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1. 그린투어리즘의 성공 사례분석¹⁹⁾

4-1-1 농림어업체험민박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사례

1) 홋카이도 신토쿠정(北海道新得町)

(오비히로시-帯広市-의 북서쪽 약30km)

신토쿠 지역은 타이세쓰산(大雪山) 을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역의 풍족함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토쿠(新得)농촌 홀리데이연구회, 신토쿠 농촌연구회가 주최가 되어 자연체험교류시설, 농림어업체험민박, 지역주민 등과 연계하여 지역전체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전개하고 있다.

1992년에 지역주민에 의한 설립된 신토쿠농촌 홀리데이연구회 및 1993년에 농가민박이 주체로 발족한 신토쿠 농촌연구회가 농림어업체험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자연체험교류시설인 “산의 교류관” 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우유 짜기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만들어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실시하였

18) 도시민들이 지역의 계단식 논을 구입한 후 지역농가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제도

19) 사례분석은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2006.4.),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現状について」 와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企画部農村政策課(2007.3.),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展開方向」의 자료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다.

성과는 연간 관광객 수가 1995년 3만 명에서 2004년 16만 명으로 증가되어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였다. 성공 이유는 지역주민 주도에 의한 신토쿠(新得)농촌 홀리데이연구회, 신토쿠 농촌연구회 등의 추진체계에 행정의 뒷받침하는 제휴체제의 확립과 지역 관광협회와의 제휴에 의한 농림어업 체험 민박을 소개한 신토쿠 홀리데이 가이드의 발행 그리고 자연체험 교류 시설인 “산의 교류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에 의한 지역의 효과적인 정보 발신을 실시 한 것이다.

2) 기후현 타카야마시 이치노미야정 (岐阜県高山市一之宮町)

(타카야마시에서 약8km, 나고야 시에서 약100km)

도시권 수학여행단의 유치를 통한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사례이다. 미야가와(宮川)의 원류 등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도시권 중학교의 수학여행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이 지역은 겨울스키 민박을 경영하는 농가민박의 봄~가을에 대한 이용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권 학생 수학여행단의 유치뿐 만 아니라 하천원류의 풍족한 자연을 이용한 도시민과의 그린투어리즘을 전개하기 위하여 간편한 1박 2일의 투어를 1년에 4번 실시하여 가족을 목표로 하는 농촌체험도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과 민간이 그린투어리즘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성과는 연간 관광객 수는 1995년의 23만 명에서 2004년은 32만 명으로 증가하여 그린투어리즘의 마을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졌다. 성공요인으로는 수학여행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규모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작은 시냇물에서의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역관광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광고의 효과 등이다.

4-1-2. 계단식논 오나(棚田オーナー)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사례

1) 치바현 카모가와시 (千葉県鴨川市)

(치바시의 남남동 약75km)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경관인 타나다(棚田, 이후 계단식 논)를 활용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황폐하는 중산간지역농지의 보전을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맺어가며 계단식논오나(棚田オーナー)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의 독특한 경관인 계단식 논(棚田)의 보전을 위한 오야마센마이다보존회(大山千枚田保存会)를 결성하고 계단식논(棚田)워킹 등의 다양한 그린투어리즘을 전개하였다.

2000년에 카모가와시(鴨川市)가 도입한 「오야마센마이다계단식논오나(大山千枚田棚田オーナー)」 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여 시작할 때에는 계단식 논(棚田)이 39조 이었는데 2006년에는 136조가 되었다. 2002년에 카모가와시가 개최한 「전국 계단식논(棚田)회의」를 기회로 2003년 3월에 29개의 계단식논(棚田) 취락이 대동단결하여 중산간지

역 등의 활성화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성공으로 연간 38만 명이 방문하여 과소화 하는 농산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성공요인으로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대처와 행정지원과 각 미디어의 보도와 인터넷이나 기관지에 의한 적극적인 정보발신이다. 그리고 도시농촌교류의 인프라 시설 정비와 「계단식논(棚田)클럽」의 정비와 더불어 「계단식논(棚田)회의」를 계기로 계단식논(棚田)에 대한 변화되고 향상된 주민의식 등이다. 성공요인은 지역이 지니고 있는 경관인 계단식논(棚田)이 불편의 공간이 아니라 독특함을 주는 차별적인 자원으로의 인식의 변화이다.

4-1-3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사례

1) 야마나시현 호쿠토시 수타마정(山梨県北杜市須玉町)

(코우후시—甲府市—의 북서 24km)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복합적인 도시 농촌 교류를 실천한 사례로 지역에 있는 메이지(明治)·타이쇼(大正)·쇼와(昭和)의 3세대의 학교를 활용하여 도시 농촌 교류를 실천하였다. 메이지(明治) 시대의 학교는 메이지 8년에 건설된 목조 학교로 현재는 호쿠토시수타마의 역사 자료관으로 복원 활용되고 있다. 타이쇼(大正) 시대의 학교는 농업 체험, 농원 시설로서 소바 만들기, 호우토(야마나시현의 특산물) 만들기, 각종 농업 체험의 도예와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였다. 쇼와(昭和) 시대의 학교에서는 현지에서 얻은 신선한 식품 재료를 사용한 본격적인 이탈리안 요리나 막구운 빵 등을 제공하고 현지 유기 작물이나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성공으로 소바 만들기 체험의 이용객에 의해 메밀이 부족하여 현지 츠카네 지구의 유희 농지를 활용해 메밀을 생산하게 되었고 도시민과의 교류 인구가 증가하였다. 성공요인으로 폐교가 된 메이지(明治)·타이쇼(大正)·쇼와(昭和)의 3세대의 학교라는 다른 지역에 없는 자원을 복합적인 도시 농촌 교류 시설(자료관, 체험관, 식품 재료 제공 시설, 숙박, 육식 등)로 활용한 것과 맛있는 학교에서의 요리식품 재료를 현지산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류의 요리사를 기용하여 진짜 맛있는 요리를 도시 주민에게 대접한 것이다.

4-1-4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린투어리즘의 사례

1) 미야자키현 니시메라마(宮崎県西米良村)

(미야자키시—宮崎市—의 북서 약 80km)

단순히 니시메라마에서의 휴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유자나무나 꽃의 재배 등 계절적으로 일손이 부족할 때 일을 도와주고 얼마간의 보수를 얻는 것과 동시에 천천히 마을에 체류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니시메라마의 좋은 점을 체험하는 「니시메라형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1주 동안 니시메라마

에 체재하는 경우 3일간은 「꽃나무 심기, 소작물의 출하, 유자잼 만들거나 선별」 등 간단한 일을 체재 농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4일간은 천천히 마을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워킹홀리데이동지회」를 발족해 사분기마다 지역 이벤트 등의 모습을 담은 마을 홍보잡지를 발송하고 있다. 연 1회, 농가와 지금까지의 참가자에 의한 「워킹홀리데이교류회」를 매년 다른 계절에 실시하여 메밀 만들거나 낚시질 체험 등에 의한 교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시권의 젊은이를 약 2주일간 받아들여 워킹홀리데이를 체험하면서 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시켜 세대를 넘은 폭넓은 주민과의 교류가 깊어지면서 니시메라마의 매력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도시에 사는 젊은이의 신선한 관점을 향후의 지역 만들기에 활용해 가는 인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큐슈 중앙 산지 인근 여섯 개의 지역과 제휴에 의한 광역적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로 1998년의 시행 기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여 2004년까지 참가자수는 319명이었고 평균 체재일수는 5.4일이 되었다. 이용자는 당초에는 정년을 맞이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젊은 세대의 독신 여성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사례는 한국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농활)의 방향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2. 시사점

성공한 그린투어리즘은 첫째,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단체 방문객, 가족 방문객 등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농산물이나 풍부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방문객들에게 본 고장의 독특한 맛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도시의 수학여행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교의 규모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한 도시학교의 자연체험 교실을 수락하는 등 적극적인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에 방치되고 있던 폐교 등의 시설을 복합적인 도시농촌교류시설로 변화시키며 지역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추진체제가 있는 것이다. 즉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공동과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류회, 보존회, 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주민주도형의 추진체제가 있고 또한 그린투어리즘에 관련된 리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도농교류의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고 지역추진조직이 광역적인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도농교류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농산어촌의 모습을 도시로 발산하고 또한 지역의 관광협회 등과 연계하여 체험시설과 음식정보 등의 농산어촌에 대한 명확한 지역의 정보를 도시

민들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경관을 불편의 공간이 아니라 차별화된 자원으로 인식하여 적극 개발하고, 워킹홀리데이를 활용한 인턴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에 맞게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그린투어리즘은 현대인들의 웰빙과 자연체험의 욕구증가와 고령화, 과소화, 제1차 산업의 쇠퇴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두된 체험형 관광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산어촌만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도시와 농산어촌이 서로의 필요에 의한 즉 쌍방향에서 오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이 제휴하여 공생과 교류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예전의 농산어촌은 도시민들이 도움을 주는 낙후된 지역으로의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농산어촌을 일본문화의 참모습 또는 정체성이 보존되어있는 곳으로 인식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일본다움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그린투어리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린투어리즘에 종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과 테마별 연수회와 농가민박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연수회를 개최하고 각종 미디어와 이벤트를 활용한 농산어촌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권에서 농산어촌지역민과 만남의 장 마련, 외국인을 위한 국제그린투어리즘 사업의 권장 그리고 도농교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여 교류거점의 정비와 광역제휴를 위한 지원과 어린이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의 추진 등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산어촌민박어머니100선>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농가민박의 경영과 지역의 활성화에 성공한 여성이 농가민박 경영내용이나 활동실적을 소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농가민박의 품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그린투어리즘의 농산어촌에서 장기 숙박 체험을 초등학교생들이 배우려는 의욕이나 자립심, 배려심, 규범의식의 풍부한 인간성이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일종의 교육과정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공한 그린투어리즘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주민주도형의 추진체제가 있고, 폐교 등의 지역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워킹홀리데이 형태의 전략도 추진하며, 도농교

류의 정보네트워크가 광역적으로 구축되어있어 농산어촌에 대한 명확한 지역의 정보를 도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농산어촌의 환경이 비슷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또한 많다. 최근 변화되는 한일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경향과 성격에 대한 비교연구는 추후의 과제이다.

【参考文献】

- 김범수 외(2000), 「한국과 일본의 농산촌 지역에 있어서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관한 비교」, 『산림휴양연구』 제4권 제1.2호
- 김상윤(2001),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 5권 2호
- 문옥표(2000), 「그린투어리즘의 생산과 소비」, 『농촌사회』 제10집
- 박광순(1998),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30권 제1호
- 송광인(2003),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18권 제1호
- 유상호 외(1998), 「일본형 그린투어리즘 현황에 대한 연구」, 『관광농업연구』 제5권 제1호
- 이용진(2000),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변천과 특징」, 『관광연구』 제15권 제1호, 대한관광경영학회
- _____(2003), 「일본 리조트법 개정이후의 관광개발에 관한연구」, 『경제경영연구』 제1집 제3호
- 長谷政弘(1997), 『観光学辞典』東京：同文館
-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2006.4),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現状について
-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企画部農村政策課(2007.3.),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展開方向
- (財)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 「平成 18年度 事業計画」, 「平成18年度 事業報告」, 「平成 19年度 事業計画」, 「平成 19年度 事業報告」, 「平成 20年度 事業計画」
- <http://www.kouryu.or.jp>
- <http://www.ohrai.jp>
- <http://www.soumu.go.jp>

要 旨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は、現代人のウェルビーイング (well-being) と自然体験の欲求増加と、高齢化、過疎化、第一次産業の衰退など、様々な課題を負っている農山漁村地域の問題の解決に向けた一つの方法として擡頭された体験型観光行動と言える。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日本のグリーンツーリズムは、農山漁村だけが主体になるのではなく、都市と農山漁村がお互いの必要による自発的交流といった新たなライフスタイルの普及という観点での、都市と農山漁村が連携して共生と交流という行動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の協同的な性格が強い。

このような目標を進めていくために、農山漁村の多様な情報を効果的に提供するための色々な施策の実施、特に子ども向けの農山漁村交流プロジェクトの実施、大都市圏における農山漁村地域民との出逢いの場の設定など、都市住民が持っているグリーンツーリズムに対する潜在的ニーズを具体的な行動に結び付けている。また、グリーンツーリズムに携わっている人材の育成のためのテーマ別研修会と教育を行っている。農山漁村ではく農村漁家民宿おかあさん100選の制度などを活用して、農家民宿の経営と地域の活性化に成功した女性が農家民宿の経営の内容や活動実績を紹介するネットワークを構築するなど、農家民宿の品質を維持、向上させるための多様な努力を傾けている。

このような日本のグリーンツーリズムは地域の特性によって農林漁業体験民宿、都市の学生の修学旅行の誘致、学校などの既存施設の活用、棚田オーナー制度活用、民間交流施設の活用、民間団体の組織活用、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の活用などのように様々な形で行われている。

日本のグリーンツーリズム政策は農、山、漁村の環境が似ている韓国に与える示唆も少なくない。韓・日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比較研究は今後行われるべき課題と言えよう。

キーワード： グリーン・ ツーリズム、農産漁村餘暇法、農家民泊、共生、交流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